

# 30-30-100-100

김도영 타점 추가... 30홈런-30도루-100득점-100타점 '역대 3번째'

# 6

KIA 80승 선착... 매직넘버 '6'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말 1타점 3루타를 기록하며 역대 3번째로 '30홈런-100타점-100득점-30도루'를 달성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키움전 8회말 대역전극 펼치며 5-2 승... 양현종 7이닝 1실점 호투



KIA가 뒷심싸움에서 이기며 80승에 선착했다. 매직넘버는 '6'으로 줄었다. KIA 타이거즈가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4차전에서 5-2 승리를 거뒀다. 김도영이 8회 1사에서 나온 행운의 안타로 결승타 주인공이 됐고, 100타점까지 동시에 채웠다. KIA 양현종과 키움 아리엘 후라도의 기싸움이 전개되면서 7회까지 1-1의 팽팽한 승부가 전개됐다. 양현종의 시작은 좋지 못했다. 1회 1사에서 이주형과 송성문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양현종이 김해성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김건희와의 승부에서 3루수 김도영의 송구 실책도 나왔지만, 고영우를 상대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추가 실점은 막았다. 이후 양현종은 거침없었다.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킨 양현종은 5회 1사에서 불넷으로 박수종을 내보낸 것을 제외하고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 2회 첫 타자 김병휘를 시작으로 10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양현종이 7이닝(83구) 2피안타 1볼넷 10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키움 선발 후라도에 막힌 타선이 7회까지 1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이 점수도 상대의 실책이 발판이 됐다. 0-1로 뒤진 3회 박찬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3루수 고영우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에 성공했다. 고영우는 이어진 소크라테스의 땅볼 수비 때는 2루에 약송구를 했다. 키움이 고영우를 빼고 송성문을 3

루로 이동시켰지만, 김도영의 3루 땅볼로 박찬호가 홈에 들어오면서 1-1이 됐다. 팽팽한 승부는 8회 KIA로 기울었다. 불펜진이 가동된 8회초 KIA가 김해성의 끈질기 승부에 막혀 밀어내기로 1실점은 했지만 행운의 여신이 KIA편이었다. 8회말 최원준이 선두타자로 나와 중견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박찬호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소크라테스가 좌완안타로 2루 주자 최원준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진 1사 2루에서 김도영이 타석에 섰다. 3구째 김도영의 방망이가 움직였고, 3루 쪽으로 공이 향했다. 3루수 송성문이 포구를 준비했지만 공이 베이스 맞고 뒤로 흘렀다. 그 사이 소크라테스가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3-2로 앞섰다. 김도영은 3루까지 내달려 3루타를 장식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98타점을 기록하고 있던 김도영은 이 안타로 100타점을 채웠다. 이와 함께 김도영은 역대 41번째 '100득점-100

타점', 역대 90번째 '30홈런-100타점' 기록을 달성했다. 또 2000년 박재홍(현대), 2015년 데이즈(NC)에 이어 역대 3번째 '30홈런-30도루-100득점-100타점' 주인공도 됐다. 결국 키움은 굳게 마운드를 지키던 후라도를 내리고 김동욱을 투입했다. 분위기를 탄 KIA는 나성범의 희생플라이와 서건창, 김선빈의 연속 안타를 묶어 5-2로 달아났다. 9회초 KIA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첫 타자 최주환에게 내야안타는 허용했지만 변상권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뒤 병살타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30세이브를 기록했다. 이 승리로 KIA는 132경기 만에 80승을 선점했다. KIA는 앞서 1993년(124경기)에 이어 2009-2017년 132경기에서 80승을 기록하면서 우승까지 내달렸다. 승리의 주역이 된 김도영은 "100타점은 의미 있는 기록이라 기분 좋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 맞은 타구들이 잡히

다 보니까 중요할 때 기분 좋은 안타가 나온 것 같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우승을 확정하고 싶다. 아직 가을 잔치 실감이 안 난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 그런 경기에서 잘해야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인정받는 선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도영은 이번 홈 6연전에서 부상에 시달렸다. 4일 LG 에르난데스의 공이 팔꿈치 부위를 맞았고, 6일에는 수비 도중 주자 페라자와 충돌했다. 사구 후에는 다음 경기에 정상 출격했지만, 충돌 뒤 7일 경기는 결장했다. 김도영은 "선수들 아픈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하루 쉬면서 경기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경기에서 뛰다 보면 풀리니까 통증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했다"며 "당시 부상 상황에서도 페라자가 걱정해 줬고, 걱정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너무 고맙다. 경기 중 일부나 가나는 아무렇지 않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끝까지 안 다치고 파이팅했으면 좋겠다"고 페라자에게 응원 메시지도 남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왼쪽부터 소크라테스, 라우어, 스타우트, 네일.

## KIA 1위 질주 '복덩이' 외국인 있다

KIA 타이거즈의 1위 질주에 '복덩이' 외국인 선수들이 있다. KIA는 올 시즌 뜨거운 화력을 중심으로 한 투타의 밸런스로 우승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도 1위 질주의 원동력이다. 외국인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3년 차' 소크라테스 브리또는 선수들과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첫해부터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선수로 인정받은 이제 한국어 발음도 수준급이 됐다. 소크라테스는 "내 고향은 목포다. 목포 소씨"라며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 그가 꼭 집어 언급한 '목포'는 지도를 찾아 골랐다.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 김도영의 '40홈런-40도루'를 예고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은 2022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입단동기'다. 올 시즌 스프링캠프에서 소크라테스는 "김도영이 그동안 부상으로 못했던 것까지 활약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40-40을 할 것이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경험도 쌓았다. 몸도 더 탄탄해졌다"고 '40-40'을 예상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올 시즌 각종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도영은 35홈런 38도루로 '40-40'을 향한 도전을 이

### 실력·인성 겸비 '목포 소씨' 소크라테스·마운드 일등공신 네일 한국명 '강두한' 라우어·스타우트 선발 공백 메우며 1위 견인

어가고 있다. 제임스 네일은 KIA '외인 원투펀치' 고민을 지운 에이시다. 8월 24일 NC전에서 맷 데이비슨의 타구에 맞아 턱관절 골절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올 시즌 149.1이닝을 책임지면서 2.53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을 수확, 마운드 일등공신이 됐다. 우려와 달리 빠른 회복세로 '가을잔치' 전망을 밝힌 그는 지난 6일 키움전 시구자로 마운드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타이거즈 썬팬'이라고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네일은 공을 던진 뒤 쓰고 있던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어 팬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선수들에게도 비밀로 했던 '깜짝 시구'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네일의 바람으로 성사됐다. 네일은 "긴장도 났는데 마운드에 설 수 있어서 좋았다. 팬들의 응원으로 팀이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었다. 팬들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내게 보내준 응원은 단순한 응원 이

상의 의미다. 멋진 팬과 동료들이 있는 KIA에 입단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시즌 막바지 합류한 에릭 라우어, 에릭 스타우트 '에릭 듀오'도 적응을 끝내고 막판 스퍼트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빅리그 36승'에 빛나는 라우어는 지난 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피칭으로 5번째 등판에서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한국 타자들을 분석을 끝낸 그는 스스로 경기 운영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드디어 나다운 피칭을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보인 라우어는 한국 이름도 만들었다. 강두한이 라우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흔히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애칭이 따라붙지만 라우어는 직접 한국 스타일로 이름을 지었다. 동료, 프런트와 머리를 맞댄 라우어는 '두한'이라는 이름을 먼저 고른 뒤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강'씨를 선택했다. 목포를 언급한 소크라테스, 라우어는 아직 분란(?)은 정하지 않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패럴림픽 탁구 김영건 '세계 1위' 꺾고 금메달

파리 패럴림픽에서 탁구 김영건(광주시청·사진)이 '세계 1위'를 꺾고 한국에 6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김영건은 8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탁구 남자 단식(MS4) 결승전에서 완차이 차이웃(태국)을 세트 스코어 3-2(6-11 11-9 11-7 9-11 11-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패럴림픽 선수단 주장을 맡은 김영건은 올해 24년차 국가대표다. 김영건은 중학교 1학년이던 1997년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광주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2관왕에 등극한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총 8개(금5, 은3)의 메달을 획득했다. 김영건은 2008 베이징 대회를 제외하고 그가 출전한 모든 패럴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2004 아테네 대회에서 단식·단체전 금메달, 2012 런던 대회에서 단식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 2016 리우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과 단식 은메달, 2021년 열린 2020 도쿄 대회에서는 단식·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도쿄 대회 당시 금메달을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던 김영건은 이번 우승으로 3년 전의 아쉬움을 사문화해 털어냈다. 파리에서 개인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영건은 패럴림픽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공동 2위가 됐다. 공동 2위는 사격의 김인연, 1위는 금메달 7개를 딴 탁구 이태곤이다. /김진기 기자 jinggi@